

# Morning Meeting Brief

## Strategy

### [퀀틴전시 플랜] 견조한 메모리 업황에도 대미투자 · 중동 변수에 제동

- 견조한 메모리 반도체 업황 속 대미투자 변수 부각
- 미국-이란 종전 기대 후퇴, 유가·금리 동반 부담
- 수급 이탈에 업종 전반 약세, 지정학 리스크 수혜주는 부각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견조한 메모리 업황에도 대미투자·중동 변수에 제동

- 견조한 메모리 반도체 업황 속 대미투자 변수 부각
- 미국-이란 종전 기대 후퇴, 유가·금리 동반 부담
- 수급 이탈에 업종 전반 약세, 지정학 리스크 수혜주는 부각

## 견조한 메모리 반도체 업황 속 대미투자 변수 부각

앤스로픽은 2분기 매출로 전년 대비 +14.6배 증가한 115억달러를 기록. 가파른 매출 성장은 시 투자자 실제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신뢰를 강화했고, AI 인프라 투자 지속성에 대한 기대를 확대. 여기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구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중국산 메모리의 공급 확대 우려가 완화되면서 메모리 업황에 대한 투자심리도 추가 개선

전일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4.1%), 샌디스크(+8.9%), 웨스턴디지털(+5.4%) 등 메모리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며 긍정적인 투자심리를 재확인

한편, 미국 측이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요구하면서 기존 에너지 중심의 투자 검토 구도가 변화했다는 보도, 산업부는 해당 내용을 공식 부인했으나, 미국 내 추가 투자 부담과 중장기 공급 확대에 따른 메모리 병목 완화 우려가 부각되며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

**반도체:** 삼성전자(-2.2%), SK하이닉스(+1.0%), SK스퀘어(-1.7%)

## 미국-이란 종전 기대 후퇴, 유가·금리 동반 부담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기한이 만료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최우선 목표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 또한 이란의 항복이 전제돼야 종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으며, 오만이 협상을 방해할 경우 폭격에 나설 수 있다고 발언하며 군사적 충돌 우려를 재차 자극

이란 내 강경파 역시 종전 MOU에 대한 불신을 표명했고,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사우디 유조선들을 공격하는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

이에 WTI와 브렌트유 선물이 각각 85달러, 90달러를 상회하며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위축. 미국채 2년물, 10년물 금리가 4.2%, 4.75%에 근접한 점도 부담 요인

## 수급 이탈에 업종 전반 약세, 지정학 리스크 수혜주는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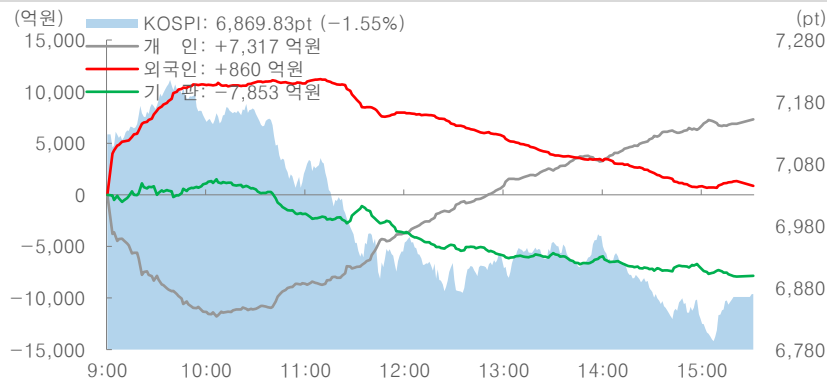
외국인 수급 이탈과 기관 순매도에 따라 전반적인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수혜주는 차별적 강세

**해운:** HMM(+6.6%), 팬오션(+4.3%), 대한해운(+2.0%), 흥아해운(+12.9%)

**정유:** S-Oil(+4.1%), GS(+2.0%), SK이노베이션(+2.2%)

**자동차:** 현대차(-4.0%), 현대모비스(-5.3%), 에스엘(-5.4%), HL만도(-6.8%)

##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